

# 나를 찾아 떠나는 인나는 연극 여행

2025 꿈의 극단 '완주' 1기  
아카이빙 북



# 나를 찾아 떠나는 인나는 연극 여행

2025 꿈의 극단 '완주' 1기  
아카이빙 북



# Contents

## 제 1장 우리의 시작

---

꿈의 극단 '완주'는?	07
프로그램 탄생 이야기	08
교육 운영 로드맵	09

## 제 2장 프로그램 과정

---

### 1. 정기 교육

상상 대작전! 연극 놀이 수업	11
긴장됐던 캐스팅 오디션	27
춤과 노래로 하나가 된 우리	32

### 2. 특별 교육

흥미진진한 공연 관람	38
넘치는 에너지로 불태운 여름 캠프	40

### 3. 생생했던 공연 현장

아동권리영화제 기념식 축하 공연	44
첫 번째 정기 공연	46

### 4. 꿈의 극단 '완주' x 꿈의 무용단 in 완주 기록 전시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62
--------------	----

## 제 3장 참여 예술가·단원 소개

---

함께한 예술가	65
출연 단원	67

# 제 1장

## 우리의 시작

---

- ① 꿈의 극단 '완주'는?
- ② 프로그램 탄생 이야기
- ③ 교육 운영 로드맵

# 1. 꿈의 극단 ‘완주’는?

## “작은 아티스트들의 놀이터”



아이들이 자유로운 연극 놀이와 창작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당당히 들려주는 예술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아동·청소년 단원들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극본의 빈칸을 채우고,  
원작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며  
연극적 상상력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합니다.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동료들, 이 사회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먼 곳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내 곁의 이야기를 무대의 언어로 실험하고 공유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무대 위에서  
단원들은 비로소 ‘나’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과 아주 닮아있는 연극 한 편을 만들어 갑니다.

## 2. 프로그램 탄생 이야기

- (1) 프로그램명 : 나를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연극 여행
- (2) 교육 대상 : 완주군내 거주 아동·청소년
- (3) 운영 기간 : 2025년 5월 3일 ~ 11월 29일 (총 31회차)
- (4) 교육 주제 : 「사사로운 일상생활」

- 거창한 서사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아이들 각자의 일상 속 경험과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야기 발굴
- 우리의 에피소드가 작품이 되는 공동 창작 방식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연극 제작

### (5) 교육 연구·개발 과정

초등학생이 연극 제작 전반을 부담 없이 경험하며, 놀이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공연의 완성도 이전에, 아이들이 교육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 1) 흥미 유발을 위한 놀이 중심 수업 구성

아이들이 연극을 잘하기보다, ‘즐길 수 있는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딱딱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한 놀이 활동으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연극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연극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였다. 아이들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 2) 대사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 최소화

대사 중심의 정극 형식을 지양함으로써, 대사 암기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아이들의 움직임과 말투, 그리고 표정을 그대로 살려 장면을 그려갔다. 아이들의 삶이 반영된 대본 제작으로 완벽함보다 진솔함에 가치를 두어 연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3)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입체적 무대 표현

초등학생이 대사 중심의 연기만으로 공연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안무, 음악, 조명, 오브제, 무대 미술 등 다양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빛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 4) 단계별 자기 탐색 활동

매주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여 단계별로 ‘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과 스토리텔링 게임을 진행하였다. 가족 안에서의 나, 학교 안에서의 나와 친구 관계, 그리고 현재의 삶과 연결된 미래의 모습까지 탐색해보았다. 이 작업은 신체 표현, 즉흥극, 소품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장면 만들기’ 활동으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에 상상력

을 더해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갔다. 이 과정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동시에, 최종 공연을 위한 이야기 소재를 축적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 5) '연극 노트' 활용과 기록의 중요성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는 '날적이 활동'은 자기 탐색 과정을 기록하는 핵심 도구이다. 노트에서 나온 아이들의 솔직한 언어와 감정, 일상의 에피소드는 최종 공연의 중요한 영감이자 결과물로 활용되었다. 또한 강사와 단원 간의 소통 매개체이자, 내적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교육적 자료가 되었다.

아울러 연출가와 극작가는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관찰하고, 아이들별 성향을 토대로 캐릭터를 구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자 어울리는 배역을 맡아 무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공연의 예술적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6) 몸의 움직임 수업

단원들이 안무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천히 접근하였다. 긴장을 하면 몸도 마음도 자유로운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깨우고, 음악에 맞춰 '멈춤-움직임'반복 동작으로 몰입을 높여갔다.

그리고 소품을 활용한 움직임을 통해 서로 몸짓과 눈빛으로 교감하며 호흡을 맞추고 협동심을 키워갔다.

### 3. 교육 운영 로드맵



## 제 2장

# 프로그램 과정

백스태이지 뒤,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 ① 정기 교육

- 상상 대작전! 연극 놀이 수업
- 긴장됐던 캐스팅 오디션
- 춤과 노래로 하나가 된 우리

### ② 특별 활동

- 흥미진진한 공연 관람
- 넘치는 에너지로 불태운 여름 캠프

### ③ 생생했던 공연 현장

- 아동권리영화제 기념식 축하 공연
- 첫 번째 정기 공연

### ④ 꿈의 극단 '완주' x 꿈의 무용단 in 완주 기록 전시

-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 5월 정기 교육 오리엔테이션

# 두근두근 우리들의 첫 만남



# 부모님과 함께한 특별한 첫 수업



## 연극 놀이 수업\_나의 이름을 소개해요!

# 제 이름에는 소중한 의미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 5월 정기 교육

## 연극 놀이 수업\_우리는 친구

# 금세 친해진 단원들



# 재미있는 게임으로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단원들



# 친구들이 돌아가며 그려준 나의 얼굴



| 5월 정기 교육

## 연극 놀이 수업\_오감 깨우기

# 다섯가지 감각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으로 감각 깨워보기



# 오늘 느낀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차곡차곡 담아보는 날적이 시간



# 우리 동네 이야기

#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몸으로 표현하고 맞춰 보는 빙고 게임!



# 우리들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연극으로 표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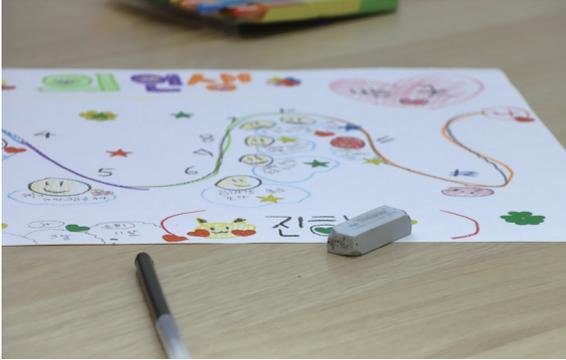
# 연극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 6월 정기 교육

## 연극 놀이 수업\_나의 일대기

# 인생 그래프 그리기



#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이야기



# 우리 싸우는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장면 만들기 놀이!



## 우리들의 사사로운 일상 생활

# 브레인 스토밍으로 우리들을 이루고 있는 일상과 솔직한 마음을 공유해봐요!



# 그림을 보고 대사를 상상해봐요.

# 선생님의 재치있는 동화구연, 그림책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연극



6월 정기 교육

## 연극 놀이 수업\_즐거운 감정 표현하기

# 우리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해요!







# 무지개 물고기 그림책을 읽고, 소중한 것을 담은 물고기 비늘을 만들어 친구에게 붙여주었어요!



#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즐거운 색깔판 놀이!



7월 정기교육

## 연극 놀이 수업\_슬픈 감정 표현하기

# 가장 화날 때를 생각하며 신문을 찢었어요!



# 슬픔의 감정을 종이에 담아 날려 보냈어요!



# '우리 집에 왜 왔니?' 게임으로 장면을 만들어 맞춰보아요



# 하늘을 나는 알약을 먹고, 나만의 지팡이를 만들어 친구들과 마법학교에 입학했어요!



| 8월 정기교육

## 연극 놀이 수업\_무대와 친해지기

# 무대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숨바꼭질하며 알아보아요!



# 키워드에 맞춰 장면을 만들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어요!



# 즐거운 연출가 선생님의 연극 지도





| 9월 정기교육

## 긴장됐던 캐스팅 오디션

# 두근두근 배역을 정하는 오디션 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 연기 했어요.



9월 정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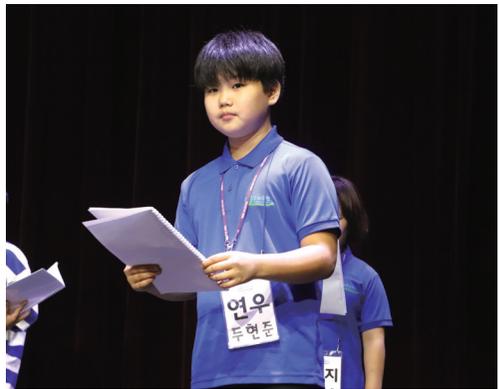
## 대본 리딩

# 오디션 결과, 나와 가장 닮은 배역을 맡아 본격적인 대본 연습을 시작했어요.



# 캐릭터에 어울리는 대사와 행동을 조화롭게 표현해보기





9월 정기교육  
대본 리딩





10월 정기교육

## 춤과 노래로 하나가 된 우리\_몸의 움직임 수업

# 고학년의 깃발 춤 \_ 나의 꿈이 담긴 깃발을 활용해 안무 연습하기



# 저학년의 학교 가는 길 \_ 동선을 따라 안무 연습하기



# 반주에 맞춰 신호등 노래 연습하기



11월 정기교육

## 본격적인 정기간연 연습 돌입

# 서로 장난을 치다가도 연습이 시작되면 진지하게 집중하는 아이들



# 그동안 파이프 장난감으로 대결을 펼치며 단련해 온 호흡과 발음 연습!



| 11월 정기교육

## 본격적인 정기공연 연습 돌입

# 연습은 힘들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모든 순간이 즐겁기만 한 단원들



# 수료식

# 헤어짐에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던 수료식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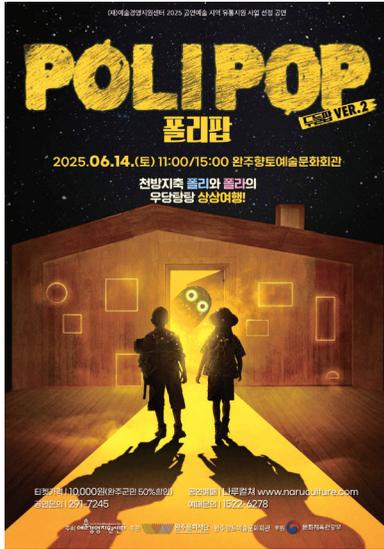


# I 특별 교육

## 공연 관람 <폴리팝-두들팝 VER.2>

# 프로젝션 맵핑 기술과 연극이 융합된 아동극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종소리 게임으로 관람 에티켓을 배워보았어요.



# POLIP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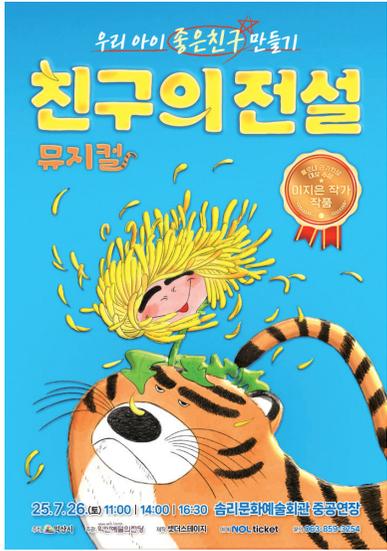


I 특별 교육

공연 관람 <친구의 전설>

# 꼬리 꽃과 호랑이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

# 익산숨리예술회관



I 특별 교육  
여름캠프

# 넘치는 에너지로 불태운 1박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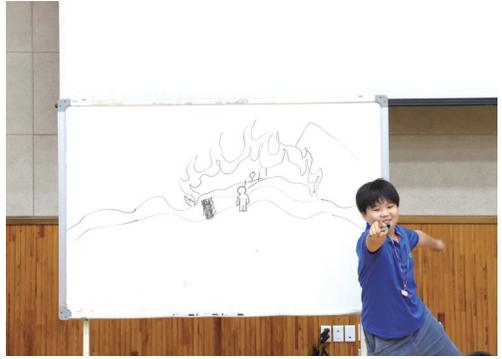


# 몸의 움직임 \_ 안무 수업



특별 교육  
여름캠프

# 다양한 활동으로 배우는 연극 심화 과정





| 생생했던 공연 현장

## 아동권리영화제 기념식 축하 공연





ㅣ 생생했던 공연 현장  
첫 번째 정기 공연

아이들이 직접 말한 경험과 감정을 수집하고 이를 섬세하게 엮어  
사사로운 일상 이야기를 담아낸 두 편의 공동창작극입니다.



## 저학년 <학교 가는 길>

등굣길을 주제로 가족·학교·우정 속에서 마주한 마음을 연극으로 스스로 들여다보는 작은 성장 드라마







## 줄거리

아이들은 엄마의 챙김을 받으며 저마다 등갓길에 나선다.

신호등 앞에서 만난 아이들은 엄마에게 혼난 아침과  
새로 산 장난감, 숙제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눈다.

곧 신호등에 불이 켜지고,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신호등을 건넌다.

누구는 빠르게 달려 신호등을 건너고, 어떤 아이는 신호등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서로를 돕고 이끌며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다.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에게는 당차게 아직 초록불이라며 대꾸도 한다.

모든 아이들이 호흡을 맞춰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면, 학교 앞이다.

학교에 도착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무얼 할지,

방과 후에 무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겁게 학교로 들어간다.









## 고학년 <집에 가는 길>

각자의 욕망과 갈등을 솔직히 드러내며 서로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찾고, '꿈' 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극





### 시놉시스

현실을 벗어나 이 세계에 도착한 아이들,  
꿈과 욕망 속에서 자신을 찾아 현실로 돌아가는 이야기!



## 줄거리

하교 중이던 아이들은 눈을 떠보니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있다.  
신비한 목소리는 자신의 깃발을 뽑아야만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각자 무엇이 자기의 깃발인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하던 중  
어떤 아이는 시험을 보는 게 지긋지긋해서, 엄마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자신은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한편 어떤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싶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현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대화 끝에 모두가 실은 현실에서 나로 살아가고 싶었음을 깨닫고  
각자의 깃발을 찾아낸다.  
깃발에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나, 정말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적혀있었다.  
아이들은 깃발을 뽑고, 더 행복하게 성장하자라는 의지를 다지며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창작진은 단원의 특성과 개성에 맞춘 캐릭터들을 만들어  
아이들이 무대에서 자신있게 몰입하도록 했고  
아이들은 작품 속에서 상상과 현실을 오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움직임과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 꿈의 무용단 in '완주' X 꿈의 극단 '완주' 기록전 -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

11월 22일(토)부터 12월 2일(화)까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아이들의 1년간의 여정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를 통해 단원들의 연습 장면과 창작 과정의 기록물, 그리고 무대 소품 등으로 7개월간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다채로운 빛을 품은 단원들  
그 빛과 꿈을 잃지 않고  
꿈의 극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새로운 에너지로  
앞으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무대로 힘차게 뻗어나가길 바라며,  
꿈의 극단 '완주'는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 제 3장

## 참여 예술가 단원 소개

---

- ① 함께한 예술가
- ② 출연 단원

## 함께한 예술가

### I 예술감독 및 창작진



#### 예술감독 정상식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연극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고 성인 배우들과 호흡해왔지만, 이번 꿈의 극단 '완주'의 예술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저에게 예술가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창의적인 즉흥성은 저의 연출적 시야를 더욱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연출가 추미경

본격적인 공연 준비 과정에서는 연출가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때로는 아이들에게 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훌륭하게 연극을 마친 것을 지켜보며 그 가능성을 충분히 믿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습 막바지까지 대사를 헛갈리던 아이들이 공연 당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다려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 극작가 송지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무엇이 싫은지 등 아이들이 일상 속 마주하는 상황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 귀 기울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게 하여 그 결과물을 토대로, 아이들의 일상이 담긴 대본을 함께 완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사사로운 일상들이 모여 작품이 되는 순간을 보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 안무가 김빛난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라 협동이 낯설 수 있었지만, 연극을 통해 '함께'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움직임을 어려워하고 몸짓이 어색했지만, 놀이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며 차근차근 함께 작업해 나갔습니다.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짧은 시간 내재미있게 잘 따라와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 예술강사 김희진

연극을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무대에 올라 공연을 발표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또렷한 목소리로 표현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이 형식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해리포터로 변신해 함께 날아다니며 웃던 장면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 모습을 보며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이 보람찼고, 그 속에서 활짝 피어난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 예술강사 노민아

처음에는 천방지축으로 보이고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보여 준 놀라운 집중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공동체 속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 예술강사 문경혜

처음 저학년을 맡게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집중하기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몫을 차분히 해내는 모습을 보니 놀라웠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연습 할 때에도 조금만 알려 주어도 금세 이해하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참 대견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 예술강사 변아희

공연 무대에 올라가면 혹시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막상 무대 위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어 교육자로서 큰 성취감이 들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순수한 아이들을 보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 단원 소개

## 고학년



가오지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연극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고 싶어요”



강대원

“친구 말에 귀를 기울여 눈 감고 장애물 피하기 게임을 했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서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김경호

“사실 연극 할 때보다 1박 2일 캠프랑 친구들이랑 노는 자유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김서윤

“대사를 외우는 게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따라서 해보니까 힘이 났어요”





**두현준**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재밌는 활동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토요일은 하루종일 행복했어요”



**서진하**

“공연 끝나니까 칭찬 많이 들어서 좋았고 담소라는 캐릭터가 저랑 성격이 막 비슷비슷해서 좋았어요”



**송민준**

“SNS에도 우리들의 모습이 올라가는 것이 신기하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신예지**

“애들이랑 대본 연습할 때 재밌어서 집에서 열심히 대본 외웠는데 끝나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만족스러웠어요”





이은하

“대본에 저랑 똑같은 캐릭터가 등장해서 깜짝 놀랐고 내년에도 계속하고 싶어요”



이하온

“유튜버가 꿈이었어서 친구들 앞에서 춤추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조하정

“제가 맡은 역할이 겁나 나대는 애라 저랑 성격이 좀 상반되었는데 저도 이제 그 캐릭터에 맞춰서 성격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황시완

“처음 공연하기 전에는 너무 떨렸는데, 막상 공연 시작하니 재밌었어요.”



# 단원 소개

## I 저학년



김서희

“무대 위에 서서  
신호등 노래할 때 좋았어요”



김로하

“누가 오랫동안 공 안 떨어뜨리고  
부나 시합하는 파이프 게임할 때  
재밌었어요”



서석용

“제가 연기했던 서용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소예준

“새로운 친구랑 친해져서  
쉬는 시간에 같이 노는 것이  
재밌었어요”





송민승

“마지막에 연극을 잘 마쳤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신아영

“공연이 끝난 후 기분이 설레고  
날아갈 것 같았어요”



윤시아

“무대 위 섰을 때는 조금 긴장됐지만  
대사 읽고 배우고 그러는게 제일  
즐거웠고 기억에 남아요”



이예린

“춤추고 노래하는 연극도 재미있었고,  
캠핑도 가서 친구들이랑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서 좋았어요”





**최은아**

“제일 즐거웠던 것은 선생님  
다리에 올라타는 거랑  
대본 읽는 거였어요”



**최인아**

“여름 캠프 때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강릉 열차도 타고 물놀이  
할 때도 좋았고,  
분장하고 무대 위 올라가니까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최지오**

“기다렸던 캠프가서 물놀이도  
재밌었고, 또 선생님들이랑  
공연 준비할 때도 즐거웠어요”



**홍다은**

“쉬는 시간에 언니랑 친구들이랑  
춤추고 노는 거랑 노래 연습할 때  
행복했어요”





황시윤

“큰 천에다가 학교 가는 길  
그림 그릴 때 재밌었어요”



##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미래를 그리다

“안녕하십니까?  
꿈의 극단 예술 감독 정상식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연극이 단순한 예술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삶과 성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며 순수하고 반짝이는 아이들과 함께 숨 쉬고 웃고 성장한 순간들은 제게 큰 기쁨이자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스스로를 발견해 가는 모습은 그 어떤 대극장 공연보다도 큰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의 대본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연극 형식이 아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자 일상에서 겪은 경험과 감정, 학교와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마주한 풍경과 상상을 이야기하고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엮어 연극으로 다듬는 역할에 집중했으며, 아이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이 온전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존중하며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저학년은 학교에서의 첫 사회 경험과 친구 관계를, 고학년은 가족과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용기와 창작의 주체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자기 주도적 성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즉흥성은 저에게 연극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했으며, 복잡한 감정들을 단순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아이들만의 방식을 보며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극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울러 꿈의 극단 '완주' 창작진과 예술강사들의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진심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아이들과 함께 빛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 속 무대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연극 여행'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완주군의 역사와 환경,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지역 밀착형 창작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 연극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아이들이 탄탄한 예술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완주 지역내 공연 예술 장르를 활성화 시켜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문화의 생산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극은 결코 혼자 만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 예술입니다. 앞으로도 ‘꿈의 극단’이라는 이름과 같이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꿈의 극단 ‘완주’의 무대를 따뜻한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단원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술 감독

정상식

## 2025 꿈의 극단 완주를 마치며

극작가 송지희

2025년, 늦봄부터 연말까지 긴 시간을 함께 달려온 완주 꿈의 극단이 드디어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과 운영진, 그리고 창작진까지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는 함께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연극의 본질이 그러하듯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 가능한 작업이 아니기에, 모두가 진심으로 힘을 보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공연은 ‘결과물’이기 전에, 함께 성장한 시간에 대한 응원과 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꿈의 극단 사업은 연극을 완성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생각과 언어를 무대 위에 펼쳐내는 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학년 공연 <학교 가는 길>과 고학년 공연 <집에 가는 길>은 모두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고 말했던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말과 감정을 수집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주고받는 소소한 말들이 극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시절을 회상하는 저학년 아이들의 말도 새로웠고, 각자의 스트레스 요소를 공유하고,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 아이들의 대화도 새로웠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 친구를 사귀기 힘들 땐 그냥 가서 인사하면 된다는 말이나, 혼나도 자꾸 장난이 치고 싶어져서 곤란했던 기억, 힘들거나 아플 땐 그냥 좀 울면 괜찮아진다는 말 등이 무대 위 대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고학년은 조금 더 날카로운 진심들이 나왔습니다. 동생이 없어서 버렸으면 좋겠다, 시험을 찢어버리고 싶다, 뽀족한 마음을 통통하게 부풀리고 싶다, 화가 날 땐 그냥 화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난 지금 내 모습도 멋지다고 생각한다 등의 말들이 수업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진심들은 극 속에서 아이들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말이 대사로 적혀있으니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아이들의 감정이 반복적인 연습을 거치며 구체적인 ‘대사’가 되고, 거기에 행동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연극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설득하고 충돌하는 장면을 만들어 가면서 내 감정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걸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작가가 혼자 쓰는 방식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말과 감정이 창작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하는 만큼 아이들의 진심을 끌어내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를 귀한 보석 캐듯 채집하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꽤나 힘든 작업이었지만 아이들의 말이 가진 힘을 믿고 대본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게 배우들의 진짜 대본이란 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작업해왔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함께 견뎌준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무리 커튼콜은 모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마칠까 합니다. 아이들의 말로 끝내 작품이 완성됐고, 아이들은 창작부터 공연까지 모든 과정을 끝까지 멋지게 해냈습니다. 선생님들과 운영진, 창작진은 아이들의 리듬에 맞춰 따라가면서 그들을 배우이자 협업자로 대하며 모든 과정에 진심과 존중으로 임하였습니다. 관객들 역시 성장의 순간이 담긴 연극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다시 손을 잡으며 무대에서 한 뼘 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며, 완주 꿈의 극단의 첫 번째 ‘완주’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 다채로운 빛으로 세상을 따듯하게 밝혀줄 꿈의 극단 단원들

코디네이터 이정란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해왔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각예술을 전공한 저에게 연극은 낯선 영역이다보니,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해맑은 얼굴로 먼저 다가와 제 마음을 간지럽히는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 두려움을 어느새 녹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시간과 행복한 경험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교육 운영을 해왔습니다.

꿈의 극단 '완주'의 단원들과 함께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어른인 제가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면 단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른이 아닌 아이가 되고, 때로는 귀여운 동물과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진심을 담은 교육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 연극 특유의 톤과 표현으로 실수한 아이 또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모습 속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그 초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교육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유대가 쌓여 있었기에 정기 공연 준비 연습으로 힘들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단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공연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극은 문학을 토대로 배우의 목소리와 행위, 그리고 음악과 무대 미술이 어우러진 복합예술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협동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장르입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또한 매우 중요했는데 아이들 만큼이나 마음 따듯한 부모님들을 만난 덕분에 큰 힘이 되었고, 함께했기에 더욱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환한 얼굴 처럼 예쁜 마음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우리 단원들.

꿈의 극단 '완주'의 첫 시작을 훌륭하게 이끌어준 1기 단원들 덕분에 활기찬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단원들 또한 이 경험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도 씩씩하게, 본연의 빛을 발하며 자라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꿈의 극단 '완주'의 첫번째 코디네이터로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은 제게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영광이었습니다.

## 완주문화재단

이사장	유희태
상임이사	정철우
문화예술사업국장	이재정
문화예술진흥팀	장시형
	김희윤
	이정란

## 함께해 주신 분들

음원 제작	서민수
음향/효과	오찬식
무대 영상	백중현
무대 세트	서령
분장	강지영
홍보 제작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 참여 예술가

예술감독	정상식
연출가	추미경
극작가	송지희
안무가	김빛난
주강사	김희진
주강사	노민아
주강사	문경혜
주강사	변아희

## 출연진

가오지아	송민승
강대원	신예지
강혜원	신아영
김경호	윤시아
김다운	이예린
김로하	이은하
김서윤	이하온
김서희	조무경
김우주	조하정
김지아	최은아
두현준	최인아
서석용	최지오
서진하	홍다운
소예준	황시윤
송민준	황시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장소제공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협력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 교육극연구소 '마중', 극단 '오락'

꿈의 극단 '완주'  
인스타그램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 2026년 꿈의 극단 '완주' 2기 단원 모집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예술적 경험을 통해  
연극 놀이·즉흥극·스토리텔링 게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극의 기본 요소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아이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무대 언어로 표현하여 소통하는 즐거움을 배워갑니다.

첫번째, 자신감에 활짝 꽃 피우는 우리!

두번째, 마음 속 상상을 밖으로 꺼내 연극으로 표현해요.

세번째, 같이의 가치, 무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네번째,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담긴 연극을 만들어가요!



예술을 통해 성장하고,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 함께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 갈 아동·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육일정** 2026년 3월 ~ 11월 예정

**모집대상** 완주군 거주 아동·청소년 (초등 1~6학년)

**혜택** 전과정 무료

**문의**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 꿈의극단

Theater of Dream

주관·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협력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 교육극연구소 '마중', 극단 '오락'

본 인쇄물은 2025 꿈의 극단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